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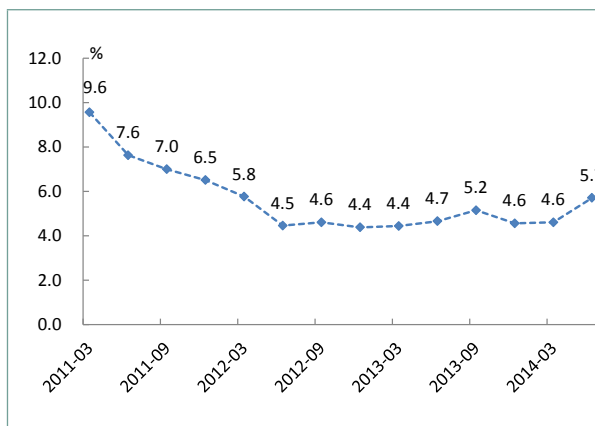
중국, 일본과 손 잡는 인도, 멀어지기 전에 적극 공략해야

모디 총리의 신정부 출범 이후 인도의 경제상황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인도는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인도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급변하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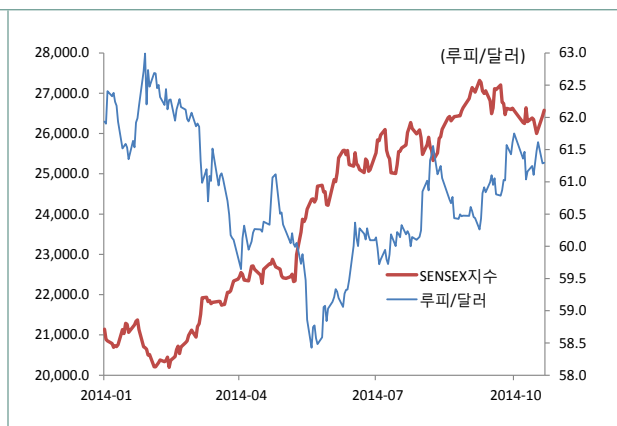
1 최근 인도 경제 동향 및 전망

- 신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인도는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주가가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4~6월 중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5.7%를 기록하였으며,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도 7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1.7%로 축소됨
 - * 2013년 4~6월 경상수지 적자 : GDP 대비 4.8%로 218억 달러 기록
 - 주가가 연일 상승하여 9월 8일 27,319.85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10월 23일 현재 26,851.00으로 연초대비 27% 증가
 - 자동차 판매 역시 지난 5월 9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감소세를 지속하던 상용차 판매증가율 역시 9월 중 상승세로 전환됨

인도 분기별 경제성장률



SENSEX 지수 및 루피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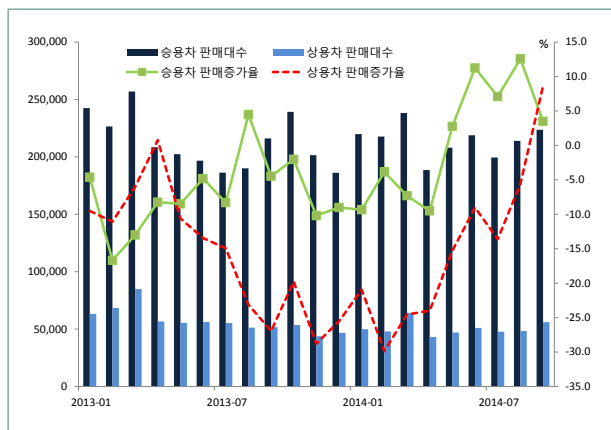


자료 : CEIC, 인도중앙은행

□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통화긴축정책으로 기준금리를 8.00%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물가상승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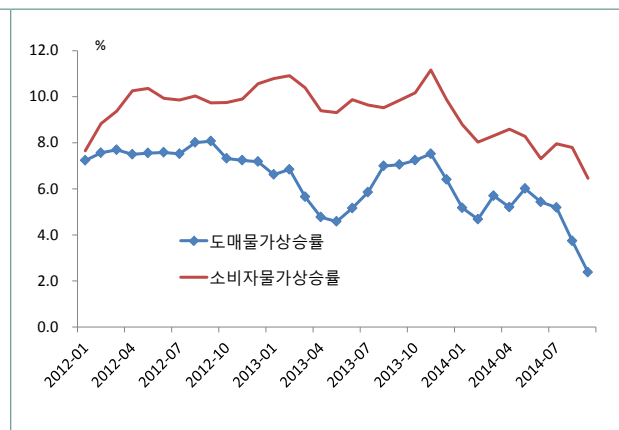
○ 도매물가상승률(WPI)은 2.38%,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6.46%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인도중앙은행이 목표로 잡고 있는 2016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6%는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인도의 월별 승용차 및 상용차 판매 추이



자료 : CEIC, SIAM

인도의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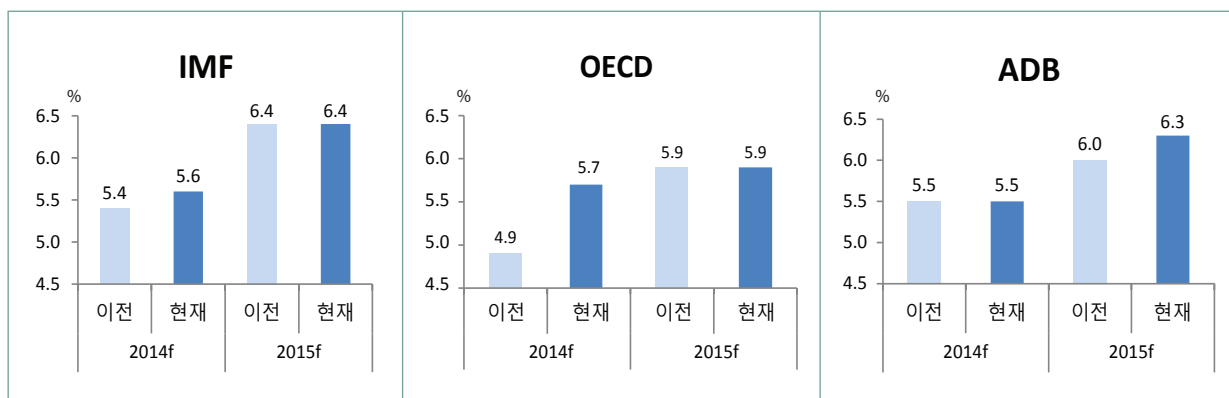


자료 : CEIC, 인도중앙은행

□ 5월 26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은 향후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 IMF는 지난 10월 2014년 성장률을 기존전망치인 5.4%에서 5.6%로 0.2%p 상향조정
○ OECD는 지난 9월 2014년 성장률을 기존전망치인 4.9%에서 5.7%로 0.8%p 상향조정
○ ADB는 지난 9월 2015년 성장률을 기존전망치인 6.0에서 6.3%로 0.3%p 상향조정

주요 기관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주 : IMF는 7월과 10월 전망치 비교, OECD는 5월과 9월, ADB는 4월과 9월 전망치 비교

자료 : IMF, OECD, ADB

2

일본과 중국의 인도를 향한 경주

□ 일본과 중국은 모디 총리 당선 이후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금년 8~9월 중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일부 약속은 이미 이행 중

○ 모디 총리는 일본측 초청으로 금년 8월 30일~9월 2일간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5년간 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민관파트너십 인프라 사업 융자 지원을 약속함

- 또한 구자라트 주, 마하라슈트라 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마드야 프라데시 주의 산업도시 및 통합 산업지역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의 부품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일본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약속

- 모디 총리는 신뢰 구축을 위해 사업환경 개선과 함께 인도 진출 일본 기업 수와 일본의 인도직접투자를 2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일본 투자 유치 및 일본 기업 지원을 위한 총리직속 특별조직 신설을 약속

* 실제로 10월 8일 인도 정부는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촉진국 소속 공무원 4명과 일본 경제산업성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Japan Plus”팀이 출범하여 업무에 착수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올해 9월 17~19일간 인도를 방문하여 5년간 인도 인프라 및 산업 개발에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함

- 중국은 마하라슈트라 주와 구자라트 주에 1,250에이커에 달하는 2개의 중국기업 전용 산업공단 건설에 6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그린에너지 파크, 전기강관 공장 건설과 전기, 전자, 플라스틱 생산 등에 주력할 예정

- 또한 중국은 인도 고속철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도 철도공무원 100명을 중국에 초청해 화물철도 관련 연수 시행을 약속

- 구자라트 주와 광둥성간 5년 자매결연 및 뭍바이와 상하이의 쌍둥이 도시 육성(자매결연) 협정 체결

- 이외에 델리 국제도서전시회 관련 협력,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인도 농업 및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노력 등에 관한 협정 체결

일본과 중국의 인도와의 정상회담 결과 비교

구분	일본-인도 정상회담	중국-인도 정상회담
기간	2014. 8. 30~9. 2 (3박 4일)	2014. 9. 17~19 (2박 3일)
장소	일본	인도
주요 결과	• 일본은 5년간 인도에 350억 달러 투자 및 아쌈 지역 하수처리사업 등에 차관 제공 약속 • 구자라트 주, 마하라슈트라 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마드야 프라데시 주에 중소기업 중심 일본기업 전용공단 조성 추진 • 도로교통, 신재생에너지 분야, 친환경 화력 발전소 건설, 클린 석탄기술 협력 추진 합의 • 일본은 인도와 일본의 수륙양용기 US-2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 인도는 일본 투자 유치 및 일본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직 신설(10.8 Japan Plus 팀 운영 시작)	• 중국은 인도에 5년간 인도 인프라 및 산업 개발에 200억 달러 투자 약속 • 구자라트와 마하라슈트라에 중국기업 전용 산업공단 조성 및 스마트 도시 시현 사업 협력 • 고속철 프로젝트 기술 지원 및 투자 약속, 인도 철도공무원 100명 초청 중국 화물철도 연수 • 중국발전은행과 구자라트 주정부 산업확장 사무국(Industrial Extension Bureau)간 양해각서 체결 • 인도 의약품, 농산물, 서비스에 관한 시장접근, 항공기 임대, 금융, 전자통신, 화학, 풍력 발전, 섬유, 해산물 등에 관한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

자료 : 각종 언론보도 종합

3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점검

□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중 개최한 전임 만모한 싱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아직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음

○ 한-인도 무역투자촉진공동위원회(장관급) 개최 및 한-인도 CEPA 협정 개선에 관한 논의는 금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임

- 그간 2~3회의 실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 10월 17일경 한-인도 무역투자촉진공동위원회 설치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일전 인도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됨

○ 한-인도 CEO 포럼(한-인도 기업 상설협의체) 개최에 관한 논의는 금년 3월 중 개최를 하려고 했었으나 5월 인도의 대선을 감안하여 불발되었으며, 10월 17일 실무자급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음

○ 현재 주 6회 운항 중인 양국간 항공편을 늘리기 위해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10월 20~21일간 개최된 양국간 항공회담에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현재 양측이 가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담당부처에서 조약문의 오류 여부를 심사 중
 - * 가서명에서 발효까지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며 양측이 국내에서 심사단계를 거친 후 정식서명 및 비준 절차가 시작됨

4

결론 및 시사점

- 일본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의 추진력에 따라 인도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한-인도 CEPA의 개선이 절실함
 - 현재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2.8%로 1위인 중국(11.3%)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직접투자는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 * 2013-14 회계연도 기준 수입시장점유율 : 중국 11.3%, 한국 2.8%, 일본 2.1%
 - * 2000년 4월~2014년 3월까지 누적투자액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의 對인도 투자 중 7.5%, 우리는 0.65%, 중국은 0.18% 차지
 - 일-인도 CEPA에 비해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이 낮아 우리 제품을 수입하는 인도 기업인들도 한-인도 CEPA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음
 - * 일-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 수준은 90%, 한-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수준 85%임
 - 인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위해 인도측이 관심을 가질만한 인도 농산물 및 투자, 서비스 개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
- 인도와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과 함께 1월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함
 -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모디 정부 출범 직후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장관급 회담인 한-인도 무역투자촉진공동위원회 및 한-인도 CEO 포럼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주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함
 - 한편, 인도진출 관심 기업에서는 인도정부의 새로운 제도 시행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송송이 (6000-6585, songiee@kita.net)

현장

고객

미래

“
무역의 길을 여는
신뢰의 동반자,
국제무역연구원
”

01. 현장중심

무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현장 보고서 및 정책 대안 제시

02.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무역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상품, 서비스,
FTA 등의 중장기 연구

03. 고객중심

회원사, 정부, 유관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중심 연구 활동

국제 무역 연구의
Think Tank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I I 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